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지부교섭 속보

05호

2021.05.28.(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6차 지부교섭_사측 제시안 없음]

얼굴보고 인사하고 땡?



왕복 4시간 시간낭비

6차 지부교섭이 끝나는데 10분도 채 안걸렸다. 사측은 제시안 없이 교섭에 나왔고, 노측 교섭위원들의 질타 속에 교섭은 10분도 안걸려서 끝났다. 코스모링크에서 충주 KDK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오자마자 얼굴보고 인사만 하고 헛걸음을 하게 했다.

경미호 한국JCC지회장은 “코스모링크는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린다.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가는 건 정말 아니다. 각성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달라. 성의있는 제시안 꼭 준비하셔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전환협약, 진정한 상생 위한 것

김정태 지부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벌 대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노동은 배제된다. 골고루 혜택가게 만들자는 것이 산업전환협약의 핵심 포인트다. 사용자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에 같이 요구하고 사업장별로 노사가 같이 논의하는 체계 만들자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며 무성의한 사용자들을 비판했다.

산업전환협약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환을 정의롭고 진정한 상생의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요구이다. 사용자들도 전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성의있는 제시안 준비해야 한다!

다음주 목요일이 KDK 휴무인 관계로 차기 교섭은 6/10(목) 14시30분 코스모링크에서 열린다. 2주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만큼 사측은 성의있는 제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6차 교섭의 헛수고를 만회할만한 제시안을 기대한다.

* 차기 교섭 : 6/10(목) 14시 30분 코스모링크

6차 교섭 속기록

요구안 전폭적인 수용 기대하겠다

사 : 매년 만나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을 한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회사도 매출이 만만치 않았다. KDK는 원재료도 폭등했다. 기업이 살아야 기업주도 살고 종업원도 사는 상생이 될 수 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협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겠다.

노 : 코로나로 인해서 흥한 회사도 있고 망한 회사도 있다. 자동차 업종은 선방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흥하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사 엔진회사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리가 이윤공유제를 얘기할 정도였다. 어디는 흥하고 어디는 망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상생하기 힘들다. 올해 노조 요구안이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계획에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있는데 노동이 배제되고 있다. 전 부 재벌사에게 지원한다. 산업전환협약은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지역 사업장도 대공장, 작은 공장 있다. 작은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전환협약은 정부 지원을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퍼주는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다. 어느 기업이 도산 파산하면 거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잃는다. 어느 기업은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으니 지역에서는 그런 노동자 생존권을 함께 지키자는 선언적인 의미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사측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 우려일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 교섭이 일찍 타결되면 올해만큼은 요구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수용을 기대하겠다. 노사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좋겠다.

오늘 사측 제시안 준비됐나?

사 : 아직 준비 못했다. 시간을 좀 더 주면 준비하겠다.

노 : 지난 차수까지 질의응답했다. 오늘 KDK 대표도 상생을 얘기했는데 그에 맞는 성의를 보이려면 제시안 나왔어야 한다. 작년 지부교섭에서 공직취임 요구에 대해 각 지회별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크게 했다. 올해 지부장도 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하자고 했는데 사측도 그에 걸맞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같이 상생하자면서 앵무새처럼 코로나 얘기만 하지말자. 각 성 좀 하자.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다.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가야되나?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모습 보여달라. 다음 교섭에서는 성의있는 제시안 꼭 제출해달라.

노사가 서로 머리 맞대고 미래산업 준비 안하면 사용자도 어렵겠지만 노동자도 어렵다. 산업전환협약은 사실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 같이 요구하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배제 안되게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안타깝다.

오늘 교섭 제시안 못낼 거면 마무리하자.